

# 2018 한국금융학회 춘계 정책심포지엄

## 금융회사 기업지배구조

토론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이시연

# I . 은산분리 이슈 (1)

---

- ◆ 지배주주 존재 허용 여부와 지배주주의 identity 제한 문제는 구분이 필요
  - 해외에서 부보 금융회사에 대해 지배주주 존재를 허용하는 사례는 다양하며, controlling family가 존재하는 은행도 종종 존재
  - 그러나 지배권을 취득·보유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제약
  - 특히 은행업과 비금융업의 분리 원칙은 여전히 지배적

# I . 은산분리 이슈 (2)

---

- ◆ 미국: “separation of banking from commerce” 원칙은 계속 유지
  -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은행주에 대해 은행업과 밀접한 영업행위에만 한정하도록 규정
  - GLBA 1999: Commercial firms와 S&L의 결합이 가능한 규제 loophole 제거, 다만 일부 기존 회사들에 대해 grandfathering 적용
  - Dodd-Frank Act: 1987 CEBA\*에서 예외를 적용받았던 ILC (industrial loan companies)\*\*에 대한 예금보호 적용을 금지
    - \* 1980년대 상업용대출과 요구불예금 중 하나만 하는 “non-bank bank”가 지주회사법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loophole을 해소
  - Federal Reserve, FDIC & OCC, “Report to the Congress and th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Pursuant to Section 620 of the Dodd-Frank Act”, September 2016): “Grandfathering exemption”등 은행업과 상업 간 분리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들을 폐지할 것을 건의

# I . 은산분리 이슈 (3)

---

- ◆ 부보 금융회사이며 공적구제 가능성이 있는 은행 등은 지배주주의 이익과 손실 분담간 괴리가 더욱 커질 수 있음.
- 정상 경영상태에서 은행 지배주주가 향유 가능한 이익= 소유권 이익(배당 및 주가 이익- 동질적)+ 지배권 이익 (배타적)
- 그러나 부실시 비용은 지배주주 뿐 아니라 기타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분담
- 부보 금융회사이며 공적구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반 납세자도 잠재적 비용 분담자이며 지배주주 관점에서 괴리가 더 심화
- ⇒ 지배주주의 의사결정 왜곡
- ⇒ 금산분리/은산분리: 부보 금융회사 여부를 포함한 공적구제 가능성 측면에서 추가적 판단 필요

# I. 은산분리 이슈 (4)

## ◆ 지배주주의 유인

①(직·간접) 소유권에 비례하는 이익(예. 배당, 주가 수익)과 ②지배권 이익의 합을 극대화

i.e.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은  $(1-w) * [\text{① performance, firm value}] + w * [\text{② private benefits of control}]$ 의 극대화 동기를 반영

- ①은 모든 주주가 누릴 수 있는 동질적인 shared benefit
- ②는 지배주주만이 누릴 수 있는 unshared, exclusive benefit
- $w$ 는 지배주주의 지배권(control right)과 소유권(ownership right)의 차이를 반영하며, 지주회사 구조인 경우 최소화 가능
- ①의 극대화에는 반하나, ②를 증가시킴으로서 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금융회사에 유리한 의사결정 가능성

## Ⅱ.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1)

---

### 1) 이사에 대한 적극적 요건 강화 이슈

- ◆ 현재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전문성 요건 적용: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 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다만,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전문성 외 기타 적극적 요건 (예. 도덕성/평판, 직무 무 전념성 등)은 부재
- ◆ **대표이사 및 기타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한 (소극적) 결격사유만 규정

## II.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2)

---

### ① 대표이사

◆ 지배구조 개선안(2018.3.)은 CEO에 대해 적극적 자격요건을 마련하도록 제시

- “최고경영자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법률상 의무화“
- “구체적 자격요건은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공시·운영”

금융전문성: i.e) 최소 이론적 배경 & 실무적 경험 요건

공정성?

도덕성?

◆ 또한 CEO 후보자군 적정성 평가 및 후보군 관리 내역 주주 보고 의무화

- 더 나아가 “Say on Succession Planning”도 가능?: 주주의 관심 및 경영승계에 대한 engagement 활성화 등 유도

## Ⅱ.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3)

---

### ② 대표이사 외 사내이사 (집행이사)

- ◆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기능의 특성, 중요성에 따라 보다 많은 적극적 요건을 요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행 기능에 따라 차별화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 요건 등을 검증하는 사전적 임원 적격성 심사의 범주에는 (ECB)“경영(집행) 및 감독(비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주체”, (영국) 고위 경영기능 수행자 (“Senior Management Functions”\*)가 모두 포함
  - \* CEO, CFO, 집행이사, CRO, 내부감사 Head, 비즈니스 부문장, 그룹 고위경영진,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 SID, 비집행이사, 준법감시담당자, 자금세탁보고 담당자 등
-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도 이러한 차원에서 강화할 수 있을 것



## II.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4)

<참고> ECB 적격성 심사시 최소 경험 요건

[경영기능]

CEO	이사
최근 (12년 이내) 10년 이상 은행업 또는 금융업 분야 실무 경험. 이 중 상당 부분이 최상위 경영진 포지션	최근 (12년 이내) 5년 이상 은행업 또는 금융업 분야에서 최상위 경영진 포지션으로서 실무 경험

[감독기능]

의장	이사
최근 기간 동안 10년 이상 관련 실무 경험. 최상위 경영진 포지션 기간과 은행업 또는 유사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당한 이론적 경험	상위 경영진 포지션으로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험 (은행업 이론적 경험 포함), 공공 또는 학문 분야의 실무 경험도 포지션에 따라 고려 가능

## Ⅱ.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5)

---

### ③ 사외이사 (비집행이사)

#### ◆ 사외이사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 대표이사의 임추위 참여 배제, 사외이사 2/3 이상 구성 (지배구조 개선안)
- 결국 사외이사의 주주대표성/독립성이 관건

#### ◆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 강화 필요성?

- 전문성 외에도 도덕성/평판, 공정성, 충실성 등 평가 필요?
- And/or 기존 전문성 요건의 강화?

#### ◆ 이사회 다양성 강화

- 지배구조 개선안은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제고를 요구
- 집합적 정합성의 정의는? 구체적 구성요소(Board Skill Matrix)는?

## II.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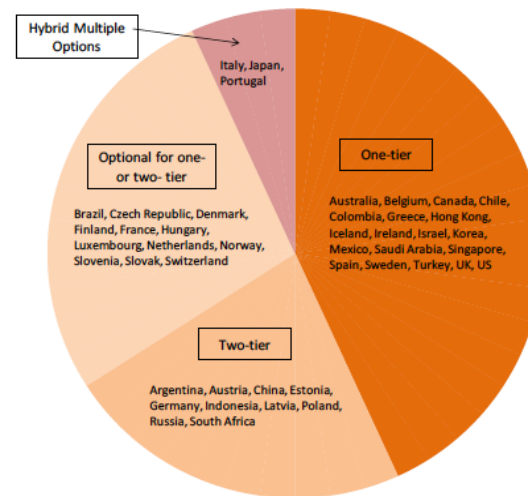
---

- ◆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주주대표성 vs 이해관계자 대표성
  - 서로 다른 주주집단 간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는 항상 다를 수 있음.
  - 지배구조 개선안은 “사외이사 후보자군 선정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추천 인재 pool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 마련 의무화” 제시
  - 외부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관리위원회’의 후보 선정: 주주이익 극대화와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 가능?: 보완 기제 필요

## II.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7)

### 2) 노동/근로자추천이사제 문제

- ◆ 유럽에서 다수 관찰되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개별 국가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사회내의 다양성 측면에서 수용 (ECB)
- 다만 노동/근로자대표이사는 이원화된 이사회(경영과 감독 분리) 시스템 하에서만 존재



자료: OECD

- 근로자추천 이사도 사외이사로서 일정수준 이상 적극적 요건(i.e. 전문성)을 만족할 필요
- ◆ 기타 이해관계자 집단의 추천 문제는?

## Ⅲ. 기타

---

### 1)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문제

- ◆ 기업의 반대 논리를 포함한, 일부 대응이 필요한 이슈들이 존재
  - 국내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소유지배구조적 측면과 잠재적 이해상충, 비용: 독립적, 전문적 의사결정의 실효성 저해
  - 내부 의사결정 합의제 기구 설치: Practicable?
  - 의안분석서비스 시장: premature (전문성, 공정성 확보 문제)
  - 연기금: 보다 장기적 투자 가능 및 계열·경쟁 관계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장점.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 2) 대주주적격성 심사

- ◆ 규제 일관성 확보 필요
  - 은행에 대해서도 심사 기준을 통일